

# “전남도, F1 적자구조 탈피 대책 있다”

### 서욱기 도의원 추궁에 박지사 “운영비 줄이겠다” 김옥기 도의원 “미래산단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전남도의회 도정 질문

전남도의회는 20일 제 25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F1(포탈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방산단단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도정 질문을 벌였다.

◇SK건설사 지분 인수, 가능한가 = 서욱기(광양 2·민주) 의원은 SK건설이 F1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전남도와 맺은 주주간 협약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박 지사를 몰아붙였다.

SK 건설은 전남도와 맺은 ‘건설투자자가 주식 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공출자자가 인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주간 협약에 따라 지난해 말 카보내 모든 지분과 채무를 전남도에 넘기겠다고 통보했고 전남도는 오는

6월까지 SK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 서 의원은 “전남도가 SK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주주간 협약을 맺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기업도시특별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지방공기업법(77조 3)에는 ‘자치단체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해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10조 5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70%)에서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민간법인인 KAVO 내 전남도와(28.83%), 개발공사(15%) 보유 지분율을 합하면 43.83%에 이르는데, 여기에 MBH 보유 지분을 17%를 인수한 SK건설(41.67%) 지분을 포함하면 80%가 넘는 만큼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SK건설은 또 MBH에 투자했던 금광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금광이 있던 보종역(337억)에 대한 채무 대책이 어렵게 되자 MBH의 채무까지 연대보증기로 협약을 맺은 상태다. 이대로라면 전남도는 SK와 MBH의 지분 뿐만 아니라 SK의 채무보증액 488억과 MBH의 채무보증액 337억, 여기에 MBH의 출자금(102억원)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또 “F1대회는 티켓을 다 팔아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이를 흑자로 돌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올해 대회를 치르기 위한 개최비용 800억원 중 200억 원만이 마련됐고 추가공사비용도 전남도가 대부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전남도의 대응방안을 물었다.

박 지사는 “민자를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벌어졌던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면서 “올해 비용은 일단 작년 운영비용보다는 대폭 줄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개최권료 등을 재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또 ‘F1 대회 특별법(24조)’의 ‘출자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지방공기업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미래산단, 이대로 방치할텐가 = 김옥기(나주 2·민주) 의원은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업포기 이후 좌초된 채 방치되고 있는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문제를 들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나주시가 왕곡면 덕산·장산·양산리 일대 295만4000㎡에 금속가공 및 전자부품업체 등을 유치해 특성화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미래일반산업단지 민간건설사 중심으로 설립했던 특수목적법인(SPC)이 해체,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중단된 상태”라며 “민간건설사가 금융권의 PF 대출 감화에 따라 섣불리 나가기 힘든 만큼 전남도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책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나주시와 협력, 전남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13개 학교 설립

#### 2018년까지 2057억 투입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오는 2018년까지 유·초·중·고 13개 학교가 설립되는 등 자족형 교육도시로 조성된다.

전남도교육청은 20일 오는 2013년에 공동혁신도시 내에 유치원과 초·중학교 각 1곳씩 3곳을 설립하는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연차적으로 오는

2018년까지 유치원 2곳을 비롯 초등학교 4곳, 중학교와 고등학교 2곳과 2곳 등 모두 10개교를 개교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20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교육청은 혁신도시 초기 활성화와 교육문제로 인한 가족 동반 이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14년에는 선진형 학교인 이른바 ‘미래형 선진 고등학교’를 개교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도시내 우수교육시설 유치가 필수적인 만큼 자립형 공·사립

고 등 우수학교 집적화를 통한 스킨 타운 조성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 지자체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유치, 다목적 복합교육관 건립, 교육문화지구 조성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등 15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이달 우정사업정보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단속 손 댔나

### 11개 시·군 7년째 실적 전무...광주 과태료 체납 상당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차량 지정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중 담양·구례·고흥군 등 11곳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실적에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전체의 적발건수도 320건(2975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88건(973만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광주시는 1179건(1억1522만원)을 단속했으나 이 중 307명(3192만원)의 운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이 17억3454만원에 달해 전체 부과된 과태료 69억6천418만원 중 24%

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양심적 주차로 인한 고의적 체납 차량에 대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상습적 체납차량에 대해 변호관을 떼어내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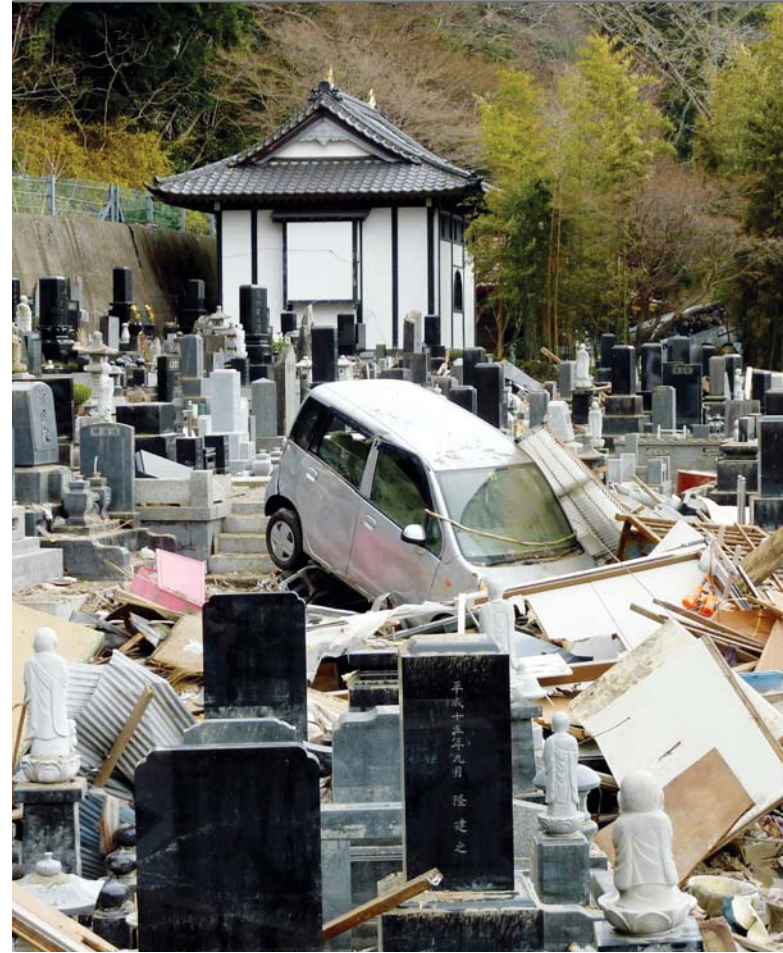
#### 국가유공자+5·18보상금 중복 수령 1억 회수 통보

감사원은 20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한 경찰관 유족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을 받은 뒤 다시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금을 받았다”며 환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 A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 A씨의 처 등 유족 4명에게 지난 1994년과 1997년 2차례에 걸쳐 보상금 1억 1033만320원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A씨 유족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가 보상금 6055만7000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최근까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日후쿠시마 인근 바다 어패류 세습 오염 심화 까나리 출하 정지·섭취 제한

일본 정부가 어패류에 대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출하 정지 명령을 내렸다.

간 나오토 총리는 20일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의거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후쿠시마산 까나리의 출하 중단과 섭취 제한을 후쿠시마현 지사에게 지시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산 우유와 일부 야채에 대해서는 출하 중단과 섭취 제한이 있었지만 어패류는 처음이다.

간 총리가 이날 후쿠시마산 까나리에 대해 출하중단과 섭취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어패류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후쿠시마현이 현재 이와키시 앞바다에서 18일 잡은 까나리의 방사성 물질을 조사한 결과 기준(1kg당 500 베크렐)의 약 29배에 달하는 1만4400 베크렐의 세습이 검출됐다.

/연합뉴스

#### 언제쯤에나...

일본을 뒀던 쓰나미에 휩쓸려 온 자동차가 지난 16일까지도 미이카기현 이시노미리의 공동묘지에 방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 신문활용교육에 3년간 385억 지원

정부가 신문활용교육(NIE)의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38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 NIE 거점학교인 서울 창덕여중에서 이런 내용의 ‘신문활용교육 기본 계획’을 공개하면서 “읽기 문화 진흥을 위해 NIE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학교 현장 중심의 NIE’ ‘사회 NIE 활성화’ ‘NIE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에 걸쳐 9개 세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 중심의 NIE’의 경우, 3년간 98억8000만원을 투입해 초·중·고교 NIE 미디어 교과 과정과 교재를 2013년까지 개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NIE 거점 학교는 올해 100개교

에서 2013년 150개교로 늘리고, 비거점 학교에는 전문 강사를 올해 170개교에서 2013년 1천개교로 확대해 파견하기로 했다.

신문사의 자체적인 NIE 실천 활동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고 16개 시도에서 신문사 NIE 담당자와 교사들이 참여하는 NIE 산학 협력 포럼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번 ‘신문활용교육 기본 계획’에 따르는 사업비는 언론진흥기금 248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137억원으로 총당한다.

/연합뉴스

#### 姜시장 공약사항 이행평가단 구성

광주시는 20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민선 5기 공약사항 이행 평가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강준태 광주시장이 선거후보시절 내건 ‘30대 핵심프로젝트 100대 실천과제’에 대해 매년 2차례씩 현장점검 중심으로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실·국·서무 담당 사무관들로 매니페스토 실천 정책담당자를 지정해 평가단에 평가전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을 높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항의 목표 달성, 이행도, 주민소통, 세금납부 요인, 반부패 청렴성, 일자리 창출 등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체 점검대상에 포함해 평가단으로부터 평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제공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을 높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항의 목표 달성, 이행도, 주민소통, 세금납부 요인, 반부패 청렴성, 일자리 창출 등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체 점검대상에 포함해 평가단으로부터 평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창사 50주년  
광주일보 1952-2011

## 조이 여행사 JOYTRAVEL

http://www.joy2000.co.kr

내일이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

대표이사 최금환

대표전화. (062) 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 234-3141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 기입업체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차역
-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예외상황: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관광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경비외환(단, 기사기타드 봉사료, 선박대금, 각종 비저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